

2면에 이어서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 3) 3단계 성령 : 이슬성령(호세아14:5~6)

UN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어 국군은 북쪽 압록강까지 진격해 갔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가 싶더니 돌연 중 공군이 참전하면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다시 국군과 UN군은 후퇴하게 되었다.

이때 박태선님은 서둘러 피난간다고 한 곳이 팽택이었다. 그곳에서 피난하여 있던 중 하루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빨리 이곳을 피하라’라는 것이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급히 밖으로 나가 약 150미터쯤 달렸을까 했는데 갑자기 뒤 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달리다가 뒤를 돌아다보니 박태선님이 머물던 집이 폭격으로 박살이 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박태선님을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는 가운데 팽택생활을 계속하던 중 하루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다.

대낮인데 방 안에 앉아 기도 중(그분은 눈을 뜨고 기도하신다) 갑자기 집 천장 있는 쪽에서 환하게 광채를 발하면서 옥함(玉函)이 위아래로 두 개가 나타났다. 박태선님은 하도 이상해서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옥함 위에서 안개 같기도 하고 이슬 같기도 한 것이 쏟아져 내리면서 옥함에 담기는 것이다.

줄기차게 위쪽 옥함에 담기던 이슬이 차고 넘치니까 넘쳐흐르는 것이 아래쪽 옥함에 담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백주 대낮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박태선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였다.

구약성경에 보면 스가라 선지자가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보는데 감람나무 두 가지 옆에 두 금대롱에서 금같은 기름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씌어 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다(스4:12). 박태선님도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 박태선님도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옥함에 계속 쏟아져 내리던 것이 호세아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슬 같은 성령’임을 알았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호 14:5-6)

이와 같은 해답을 받은 박태선님은 감사한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직 성령이라고 하면 ‘불같은 성령(1단계)’만이 성령의 전부로 알고 있었는데 박태선님을 통하여 ‘생수의 성령(2단계)’, ‘이슬의 성령(3단계)’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또 직접 받으시니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인류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6000년 동안 준비하신 모든 것(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한 것)을 이분 박태선님을 통하여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계신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삼단계 성령을 격암 유록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三旬九食三豐穀(삼순구식삼풍곡)을 弓乙中(궁을중)에 찾아보세  
第一豐(제일풍)에 八人登天(팔인등천) 惡化爲善(악화위선) 一穀(일곡)이요  
第二豐(제이풍)에 非雲眞雨(비운진우) 心靈變化二穀(심령변화이곡)이요  
第三豐(제삼풍)에 有露眞雨(유로진우) 脫劫重生三穀(탈겁중생삼곡)이라

－「격암유록」 삼풍론(三豐論)

해설: 한달에 아홉번 먹는 삼풍의 곡식을 궁을 가운데서 찾아보세. 팔인(八人)의 합자는 불화(火)이므로 제1풍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은 불같이 악

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첫번째 곡식이요. 제2풍은 구름도 없는데 내리는 진리의 비가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두번째 곡식이다. 제3풍은 이슬이 있는 참 비가 즉 감로가 탈겁시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세번째 곡식이다.

격암 선생은 위와 같이 제1단계 불성령, 제2단계 생수성령, 제3단계 감로 이슬성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만나 또는 생명의 양식(요 6:49). (계 2:17)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는 곡식으로 표현했다. 결국 진리는 하

나로 통하고 합일되는 것이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후의 박태선님의 몸에는 많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소변으로 계속 피를 쏟는 것이다. 열흘 동안 연이어 소변으로 피를 쏟았다. 박태선님은 처음에는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더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또 박태선님의 몸에서는 백합꽃 향취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소변으로 피를 쏟는 것은 “피갈음”이라는 것으로 이슬은혜를 받으면서 몸속의 죄악(=마귀)의 피가 죽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죄악의 피가 쏟

아져 나오면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러니 소변으로 피를 쏟아내면 낼수록 몸은 더욱더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이후부터 박태선님의 운몸에서는 힘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 이슬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6000년이라는 긴긴 세월이 걸린 끝에 성공을 거두신 무기로 마귀를 박멸시키시는 완전무결한 온전한 성령이다. 이상과 같이 참주인공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받아 이룬 삼단계의 성령이 아니면 다 가짜다. 진짜가 나오면 가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 화우로(火雨露) 삼풍(三豐)이 일차 이차 삼차로 진행되면서 구세주 출현

### 二. 완성된 성령 이슬은혜

- 1) 감로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중표
- 2) 감로 이슬성령은 완성된 성령

#### 1) 감로는 만법귀일(萬法歸一)의 중표

박태선님이 받은 이슬은혜는 인류 역사 최초의 은혜 체험이므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종교와 구도단체에서는 한결같이 이슬은혜인 감로에 대해서 말하여 왔지만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랐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道徳經(도덕경) 安寧品(안녕품)에는  
欲度生死苦(욕도생사고)면  
當服甘露味(당복감로미)나라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감로의 맛을 알고 마시는 데 있다.”

불경 대반열반경 5권에는  
死者名曰身壽命終(사자명왓신수명종)  
是處無死即是甘露者(시처무사즉시감로자)  
是甘露者眞解脫(시감로자진해탈)

“죽는 자는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끝나는 것이니 이곳은 죽음이 없다. 즉 이것이 감로다. 이 감로를 내리는 자가 진짜 해탈자다.”

이상과 같이 도덕경과 불경에 적힌 감로가 바로 박태선님이 팽택에서 대낮에 옥함에 담기는 이슬은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받은 이슬성령인 감로다. 여러 종교에서 구도단체의 사람들은 언제 이와 같은 감로를 체험할 수 있

을까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태선님이 처음으로 이를 직접 받고 이루신 것이다. 사실 모든 종교인과 구도자들은 도인들은 감로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저 경에 또는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감로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 감로란 부처님의 말씀 또는 불경의 진리 말씀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슬 성령인 감로는 하나님께서 6000년간 극비리에 공들여 만든 완성된 성령으로서 인류의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러므로 박태선님의 인류 최초의 감로은혜 체험은 그분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를 출현시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때문에 박태선님은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늘의 사명자라는 점을 독자들은 인식해야만 한다.

격암유록 聖運論(성운론)의 한 구절을 보자!  
甘露如雨寶惠大師(감로여우보혜대사) 正道令(정도령)이 飛出(비출)하여  
雷聲霹靂電閃迅(뇌성벽력전섬신)에 一次二次再三次(일차이차재삼차)로  
紫霞黃霧火燃中(자하왕무화연중)에 救世主(구세주)가 降臨(강림)하니

“감로의 은혜를 비와 같이 내리는 보혜대사인 정도령이 비출하여 이슬같은 은혜가 내리는데 그 이슬은혜가 마치 뇌성벽력이 칠 때 번쩍이는 섬광같이 순식간에 빛이 방사된다. 일차 이차 재삼차로 출현하는 마지막 세 번째 완성자 구세주를 통해서 내리는 이슬같은 은혜

가 자주빛 노을의 이슬안개와 같이 불과 같이 내리는 중에 구세주가 강림하시니”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 “일차 이차 삼차로 자하왕무 화연중에 구세주가 강림하니”라는 구절에서 1차로 나타난 분은 박태선 영모님이신데 이분이 먼저 출현하여 2차로 한 분(해와 이긴자)을 키우시고 또 3차로 한 분(해와 이긴자가 키운 아담 이긴자)을 출현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3차로 출현하는 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불경적으로 볼 때 이른바 세 분의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은 여자라는 「伊字三點(이자삼점=.)」의 공식」에 의한 생미륵불 출현의 역사에 해당한다.

여기서 화우로(火雨露) 삼풍(三豐)이 일차 이차 삼차로 진행되면서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였다.

사실 박태선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난 감로는 능력과 창조력 차원에서 낮은 유지한 수준의 감로였다. 그런 감로가 이차로 해와 이긴자에게서 더욱 능력과 창조력이 상승한 후 삼차로 완성자 구세주(살려주는 영 되신 둘째 아담 - 「고린도전서 15:45」)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창조력을 갖는 감로(甘露)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이 되므로 사람의 신 마귀는 전부 박멸소탕되고 영성의 신인 이기신 하나님 구세주가 통치하시는 시대로 개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세 분의 출현 중 마지막 3번째로 출현하신 분에게로 세 분이 합일되어 일인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삼위(세 분)가 일체로 합일된 분이 구세주이다.

이와 같이 감로 이슬성령을 들고나오는 분이 구세주이다. 그리고 감로를 증표로 들고 나오시는 분은 만법을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분이다. 이분이 나타나면 종교가 통일되고, 정치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고, 세계민족이 통일되고, 인종이 통일되어 감로를 들고나오시는 구세주 한 분을 중심으로 만법이 귀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감로 이슬성령의 역사가 박태선님을 통하여 최초로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 2) 감로 이슬성령은 완성된 성령

위에서 이슬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이 완성된 완전한 성령을 인류 최초로 박태선 영모님이 받아 이루신 것이다. 이 완성된 완전한 성령은 감람나무라는 완성된 존재로 출현하신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 「스가라 4:11~12」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감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요한1서 2:27」

위 스가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



▲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등대 좌우의 감람나무 두 가지(스4:11~12)

나무 두 가지”라는 말이 나온다. 위의 참고 내용에서도 밝혔지만 성경상의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름이 성령이란 것은 알겠는데, 위의 예언 속에는 그냥 기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금같은 기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는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하면 보통 기름이 아닌 아주 특별한 기름 즉 아주 값진 기름이라는 뜻이다. 바귀 말하면 성령은 성령인데 ‘아주 값진 최고의 성령’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면 아주 값진 최고의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위에서 단계적으로 성령을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완성의 완전한 성령인 제3단계의 성령인 이슬성령을 말한다.

감로 이슬은혜는 완성된 은혜인데 이 이슬은혜가 내린다는 것은 완성된 존재인 감람나무라는 존재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태선 영모님을 ‘감람나무 장로님’, 또는 ‘감람나무 영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